

### Ⅲ. 대재에 대한 제언

(6·1대재와 명절대재를 중심으로)

성정진 위원\*

(수위단회 교화상임위원회 전문위원)

#### 목 차

1. 이끄는 말.....	29
2. 대재의 의의.....	30
3. 대재에 임하는 정신.....	30
4. 의의가 살아나는 대재를 위하여.....	31

#### 1. 이끄는 말

대재 의식은 정형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 많은 출재가 교도들의 의식 속에 내용이 갖는 진지함보다는 하나의 의식·형식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또한 대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재의 본의를 망각한 채, 대재를 올리는 시간조차 지루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대재가 의식으로서가 아닌 본의가 살아나도록 대재의 의의와 임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줌으로 인해 원불교 4축 2재로서 자리 매김 될 것이란 생각을 해 본다. 대재의 특성을 살려서 각자 의의가 더욱 확연해 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한다. 소수의 의견을 전화로 면담하여 그 문제와 해결의 방법을 약간 제시

\* 성정진 위원 : 원기 86~88년까지 수위단회 교화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화정교당 주임교무로 근무하고 있다.

해본다.

## 2. 대재의 의의

예전에서 보면 대재는 대중사 이하 본교의 모든 조상을 길이 추모하여 정례로 합동향례를 올리는 것이다. 곧 추원보본의 예를 실행하는 바로서 해마다 2번 행례하되 6월 1일은 「육일대재」와 12월 1일 「명절대재」에 대중사를 위시한 역대 선영열위를 영모전에 공동 향례하며, 모든 교도로 하여금 마음을 이에 합하여, 정성을 이에 바치며, 위의를 이에 갖추어서 법계향화가 한없는 세월에 길이 유전하게 하자는 것이다.

## 3. 대재에 임하는 정신

### 1. 추원보본의 예를 실행

예전에서 「제사는 열반인의 재세 당시에 끼친 바, 공덕을 추모하며 자손대대에 그 근본을 찾게 하여 후생의 보본사상을 권장하는 것이니」처럼 지나간 업적을 수급하여 사모하고 그 근본을 찾아 보은하는 마음가짐.

### 2. 길이 유전되게 하는 것

선진이나 조상의 훌륭한 업적과 공덕을 기리며, 후진대대로 그 근본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선진이나 조상의 뜻이 한없는 세월 유전되게 함

### 3. 삼세를 통한 인연작복이다.

정산종사법어 생사편에서 보면 「재를 지내므로 인해 영가가 대중과의 법연에 도움이 된다」하신 것처럼 재 의식에 참여한 사람도 제위들과 인연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과거·현재·미래를 통하여 서로 좋은 인연을 장만할 수 있다. 원불교 교도의 조상인 소태산 대중사 이하 제위(諸位)들이 계시지 않으시면 어찌 오늘날 원불교가

있으며, 교도로서 내가 있겠는가? 이 회상 이 교법이 어찌 유전되겠는가? 대재를 통하여 「소태산 대종사 여래위, 종사위, 대봉도·대호법위, 전무출신·거진출진·회사위, 일체생령위」의 제위들과 인연이 될 것이다.

#### <전화면접> 대재에 대한 의견

대상 : 40~50대 교무(15인) — 출가교화단원, 그 외 동창교무

30대, 60대, 70대 교무(5인)

1. 대재에 대한 느낌? “지루하다”, “길다”가 100%

2. 왜 그렇게 느끼나? —

<p>고축문이 길다. 내용이 많다. 안들어온다. 혼자 올리고 있다.</p>	}	<p>대재의 의의와 임하는 정신을 주지시켜야 한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고축문 유인물 작성)</p>
---	---	--

3. 육일대재와 명절대재의 경우 성격이 달라야 하나?

① 대재를 올리는 본의는 같다.

② 그러나 명절대재는 —

<p>즐거웠으면 좋겠다. 재미 있었으면 한다.</p>
-----------------------------------

☞ 육일대재(六一大齋) : 대종사 추모에 초점을 맞춘다.  
명절대재(名節大齋) : 선영열위(조상)에 대한 감사의 정성을 올리고,  
교도 상호간에 화목을 주로 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고양시켜보자.

대재는 하나의 의식으로 교도들에게 인식되어진 편이다. 대재의 의의가 드러나고, 대재를 올리는 정신이 살아나면 대재를 올리는 시간이 길다거나, 지루하다는 생각은 멀어지고 조상을 향한 간절한 정성이 더해갈 것이다.

## 4. 의의가 살아나는 대재를 위하여

### 1. 육일대재

“추모의 달” 유월은 대종사님을 마음에 모시고 신앙하고 수행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6월 한 달의 매 예회는 대종사님을 추모하는 시간, 모시고 함께 하는

시간이 되게 한다.

- 예) 1. 대중사 추모담(선진 모시고)  
2. 대중사님 닦아가기 (표준 정하기)  
3. 부촉품, 정전 말씀 새기기(강연)  
4. 대중사님 성안 그리기  
5. 암송, 시험, 퀴즈대회를 통한 대중사님 모시기  
6. 성답 다녀가기 =» 성묘하는 마음으로

### ● 육일대재 식순

- 대재 전 성안 그리기 대회(일요예회)를 실시하여 벽에 게재(揭載)한다.
- 대재의식 시작전 “유월이 오면” 을 부르며 준비해 온 꽃을 불단에 올리도록 한다.
- 육일대재 식순을 그대로 시행한다.

## 2. 명절대재

한 해 추수에 대한 은혜를 천지와 조상들에게 감사하듯, 대중사 이하 선영열위전에 추모의 정성을 올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향례를 올리며, 명절의 의의가 드러나도록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 ① 추모향례를 올리는 부분은 살린다.
- ② 고축의 내용 중 1회는 교무가 1년을 회고하며, 은혜 속에 보냄을 감사 드리는 감사문을 올린다.
- ③ 1년간의 교당상황보고를 간략하게 정리하여(목적, 변화) 해당대표(일반, 청년, 학생, 어린이회장단, 단체장, 단장, 중앙)가 나와서 법신불과 대중사님과 선영열위전에 감사문을 올린다.  
아울러 당해 년도의 실적을(교당교회발전상황) 올려서 감사드리고, 함께( 일반, 청년, 학생, 어린이)기뻐하고, 서로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④ 선영들이 끼쳐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교당 발전을 위해 노력한 교도(일반, 청년, 학생, 어린이)에게 상과 격려를 하며 함께 기뻐하고 축하한다.

예) 출석상, 연원상, 보은봉공상, 조석심고상, 교화상, 교화단상(1년 결산)

일반, 어린이, 청년, 학생 모두가 금년도의 실적을 서로서로 알리고, 드러내 주면서 권장하고, 격려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며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 ⑤ 대재를 맞이하기 전 각 가정, 개인의 감사문을 미리 작성하여 올릴 수 있도록 계획해 본다.
- ⑥ 교도 개인 가정에 한해를 보내며 감사한 내용이 있으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새 회상 만난 기쁨)
- ⑦ 대재에 참석할 때에는 조상을 찾아뵙는 기분으로 각자가 준비한 꽃을 올리도록 한다.
- ⑧ 명절행사를 계획하여 할 수 있다.(발표회, 대회, 자랑, 음악회 등)

#### ◎ 명절대재 식순

- 교화훈련부 명절대재 개선안 등
- 대재의 의의가 진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 대재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달라질 것이다.

## 명절대재 <시안1>

1부 시작 전 => 꽃(색깔 있는 꽃), 감사문, 헌공금을 챙겨서 올린다.

- ① 개식
- ② 입정
- ③ 교가 (성가 2장)
- ④ 묵상심고 <돌아가신 선영들에 대한 묵념>
- ⑤ 묘위보고
- ⑥ 봉청 및 고축문

- 봉청 — 교무
- 감사고유문 또는 명절대재 기념문 <교무>
- 일반교도 고축문 ⇒ 회장단·단장·중앙 헌배
- 청년교도 고축문 ⇒ 회장단·단장·중앙 헌배
- 학생교도 고축문 ⇒ 회장단·단장·중앙 헌배
- 어린이교도 고축문 ⇒ 회장단·단장·중앙 헌배

※ 고축문은 1년간의 경과보고 형식으로 작성

- ⑦ 일동헌배 — 다 함께 일어서서
- ⑧ 독경 — 서원문
- ⑨ 설법 또는 가정 미담 발표, 드러내고 싶은 자랑거리 (일반, 청년, 학생들)
- ⑩ 성가 - 사은찬송가 - 5장
- ⑪ 폐식

## 2부 - 명절대재 축하공연

### ㉠ 시상 및 축하공연

1년 교화·사업·활동 분야 결과를 보고, 교화상·연원상·출석상·교화단상 등등, 일반, 청년, 학생, 어린이 모두 함께 한자리하여 상을 받는다.<서로 권장과 격려> 서로의 자랑거리를 내세워서 단별 자랑거리 알리기, 함께 상을 주고 받으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의 시간을 갖자.

㉔ 1년 결산 시상전환의 건

- ┌ 달 변경 → 12월초와 11월말일이다.  
└ 한 자리에서 시상해서 서로 알게 되고 좋다.  
다 끝나기도 전에 마무리한다. (서로 권장, 격려가 된다.)

※ 교무의 인사이동으로 바뀐다.

## 명절대재 <시안2>

시작전 ⇒ 꽃, 감사문을 챙겨서 불단에 올린다.

- ① 개식
- ② 입정
- ③ 교가 (성가 2장)
- ④ 묵상심고 (묵념)
- ⑤ 묘위보고
- ⑥ 봉청 및 명절대재 기념문

- ┌ 봉청 — 교무  
└ 명절대재 기념문 — 교무

분향 헌배

- ㉑ 일반교도 회장단, 단장, 중앙, 단체장
- ㉒ 일반교도 해당묘위 가족 분향자  
<종사위·대호법·전무출신·거진출진·일반부모선조전>
- ㉓ 청년교도 헌공 및 헌배
- ㉔ 학생교도 헌공 및 헌배
- ㉕ 어린이교도 헌공 및 헌배
- ㉖ 독경 (서원문)
- ㉗ 설법 또는 가정의 미담 듣기, 드러내고 싶은 자랑거리 / 시상  
<일반·청년·학생·어린이>
- ㉘ 성가 — 사은찬송가 — 5장
- ㉙ 폐식

